

# 원희룡 장관, “태풍 ‘카눈’ 선제적 대응에 총력” 강조

## - 8일 오후 태풍 대비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… 최고 단계 대응 태세 주문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8일(화) 오후 이번 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‘카눈’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기관별 대처 상황을 점검하였다.
  -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,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, 한국도로공사 등 7개 산하기관이 참여하였다.
- 원희룡 장관은 “최근 예측이 어려운 기상 이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도할 만큼 철저한 예방조치와 모든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”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,
  - “강우량·풍속기준에 따라 해상교량 및 열차운행 통제, 항공편 스케줄 사전 조정 등 선제적 예방조치와 기관장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”
  - “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가용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종합상황반, 도로반, 철도반 등으로 구성된 풍수해대책상황실 운영(5.15.~10.15.)을 하고 있다.

2023. 8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